

2007 등급판정 결과 우수농가 표창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웅)는 2007년 12월 14일(금) 오후 2시에 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1년(06.10.1~07.9.30) 동안의 등급판정 자료와 해당농가의 실사를 토대로 고급육생산바율이 가장 높은 농가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특강으로 축산농가와 관계자에게 앞으로의 축산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재웅 소장은 농가가 1년간 열심히 기른 소·돼지에 대해 등급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표창하는데 의의가 크다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품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선별과 시상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적

- 우수농가를 표창함으로써 선도농가의 사기 양양
- 우수농가 노하우를 공유하여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도
- 등급판정사업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및 우리소 위상 강화

조사기간

- 2006년 10월 1일 ~ 2007년 9월 30일 (소, 돼지 규격)
- 2007년 7월 1일 ~ 2007년 10월 31일 (돼지 육질)

선정기준

- 한우 : 연간 30두 이상 저세우 출하농가
육질 1등급(평균 40%)이상 출현율 55%이상
- 돼지 : 연간 2천두(B등급제외) 이상 출하 농가 중 7월~10월(4개월) 출하두수 500두 이상
규격부문은 B등급을 제외한 A등급(평균 38%)이상 출현율 50%이상,
육질부문은 1등급(평균65%)이상 출현율 70%이상

결과

- ▶ 한우부문 대상(농림부장관상)의 김상준농가(전북)는 1**등급이 70.4%(1등급이상 96.3%), 최우수상(소장상)의 이상철농가(울산)는 1**등급이 54.3%(1등급이상94.3%), 최우수상(한우협회장상)의 김용진농가(제주)는 1**등급이 54.5%(1등급이상94.3%)의 출현율로 수상하였으며 그 외 10개의 우수농가 표창. 우수상 : 양영귀(경기), 최병학(경기), 남정국(강원), 이근범,(충북), 이충희(충남), 이근수(전북), 류호진(전남), 이승래(경북), 임희열(경남), 박석운(제주)
- ▶ 돼지부문 대상(농림부장관상)의 한동수농가는 1등급이상 90.4%, A등급 58.6%, 최우수상(소장상)의 박대열농가(경남)는 1등급이상 84.9%, A등급 63.2%, 최우수상(양돈협회상)의 진남주농가(강원)는 1등급이상 81.7%, A등급 60.6%의 출현율로 수상하였으며 그 외 10개의 우수농가 표창. 우수상 : 이희철(경기), 이훈(경기), 권오택(강원), 이규연(충북), 양은석(충남), 이용문(전북), 정병출(전남), 송광복(경북), 엄홍주(경남), 장재철(제주)



▲ 한우부문 수상자 단체사진



▲ 돼지부문 수상자 단체사진